

체코 양조법에 韓 흑미 활용... ‘서울 메이트’ 다크 라거 탄생

부드바르-서울브루어리 맞손
아시아 최초로 브루어리 협업
흑미 특성 고려한 별도 공정 개발

체코 정통 라거 브랜드 부드바르(Budvar)와 서울브루어리가 손잡고 한국산 흑미를 활용한 다크 라거를 선보인다. 체코 전통 양조법에 서울브루어리의 색깔을 더한 제품으로, 부드바르가 진행하는 글로벌 로컬 브루어리 협업의 아시아 첫 사례다.

부드바르와 서울브루어리는 7일 서울 브루어리 성수점에서 협업 신제품 출시 기자간담회를 열고 ‘서울 메이트 체코 다크 라거(서울 메이트)’를 공개했다.

‘서울 메이트’는 맥아와 물을 함께 끓여 풍미를 끌어내는 체코 전통 디콕션 매싱(Decoction Mashing) 방식으로 양조했다. 여기에 국내산 흑미를 더해 다크 라거 특유의 은은한 초콜릿 향과 고소한 풍미를 구현했다. 알코올 도수는 4.7%로, 500ml 캔과 생맥주 두 가지 형태로 출시된다. 서울 메이트 개발 과정에서는 흑미를 양조에 적용하는 과정 자체가 주요 과제였다.



서울 메이트 체코 다크 라거 출시를 기념해 부드바르 홍보대사 라딤 자노벡(오른쪽)과 서울브루어리 이수용 대표가 기념촬영하고 있다. /부드바르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이수용 서울브루어리 대표는 “흑미가 일반 백미보다 단단해 분쇄와 당화 과정에 어려움이 있었고, 기존 맥아 분쇄기를 사용할 수 없어 별도의 방식으로 분쇄해야 했다”며 “특히 디콕션 과정까지 더해지면서 대량 생산 단계에서 제조 공정을 맞추는 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했다”고 어려웠던 점을 밝혔다.

라딤 자노벡 부드바르 글로벌 앰배서더는 한국을 협업 대상으로 선택한 배경에 대해 “세 번째 한국 방문인데 음식뿐 아니라 한국 문화 자체를 좋아한다”며 “한국과 체코의 색다른 브루어리가 협업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브루어리와 협업 전) 취리히에서 만나 이 대표가 건네 준 흑미를 처음 끓여 맛봤을

때 굉장히 고소하고 맛있었다”며 “맥아만 사용했을 때보다 부드럽고 은은한 풍미가 나도록 하는 데 흑미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 제품은 가볍고 산뜻한 바디감에 드 라이한 피니시를 구현한 것이 특징이다. 라딤 자노벡 앰배서더는 “라거는 섬세한 맛을 갖고 있고 디콕션 방식으로 풍미를 더했다”며 “매운 음식과도 잘 어울리는 맥주”라고 소개했다.

생맥주는 서울브루어리가 보유한 6000L 규모 탱크에서 생산하고, 캔 제품은 대량 생산을 위해 별도 시설에서 OEM 방식으로 생산했다. 생맥주는 효모가 살아 있는 상태로 제공되는 반면 대량 생산 제품은 상온 유통을 위해 살균 과정을 거친다.

이번 제품은 이날부터 전국 CU와 주요 대형마트에서 캔 제품으로 판매되며 생맥주는 수도권 주요 취급 매장에서 만나볼 수 있다. 양사는 이번 협업을 통해 체코의 전통 양조 기술과 서울브루어리의 지역적 색깔을 결합한 새로운 스타일의 맥주를 선보인다는 계획이다.

이수용 서울브루어리 대표는 이날 “서울브루어리는 맥주를 통해 서울의 에너지

와 한국의 다양한 문화를 전 세계에 알리는 것을 하나의 미션으로 삼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브루어리는 2018년 서울 합정에서 시작해 현재까지 250여종의 맥주를 개발했다. 코로나19 이후인 2023년에는 성수동에 양조장을 열었으며, 현재 일본과 싱가포르 등 18개국 이상에 맥주를 수출하고 있다.

이 대표는 “빠르게 변화하는 서울의 정체성에 맞춰 끊임없이 새로운 맥주를 선보이는 것이 서울브루어리의 경쟁력”이라며 “전 세계인이 친숙하게 접하는 맥주를 매개로 서울의 에너지와 한국 문화를 세계에 소개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한편 부드바르는 체코의 국영 브루어리에서 생산되는 라거 브랜드로, 사츠 홉과 모라비아산 맥아 등을 사용해 저온 숙성 방식으로 맥주를 생산하고 있다. 서울 메이트 출시를 기념해 이날 서울브루어리 성수점을 비롯한 서울 지역 매장에서 게스트 탭핑과 한정 굿즈 증정 등 소비자 대상 프로그램도 진행한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metro

오가노이드사이언스, 美 CGT서 기술력 공개

이틀 연속으로 임상 성과 발표
NAMs·재생치료 ‘투트랙’ 전략

오가노이드사이언스가 지난 5일 미국 애리조나주 피닉스에서 열린 ‘메사 세포·유전자치료제 미팅 2026(Cell & Gene Meeting on the Mesa 2026)’에서 이틀 연속 발표에 나서며 글로벌 시장에서 존재감을 키웠다.

첫날에는 첨단대체시험법(NAMs)의 CGT 활용 전략을, 둘째날에는 오가노이드 재생치료제의 임상 성과와 후속 파이프라인을 소개했다. 두 발표 모두 현장 참가자들의 큰 관심과 호응을 받았다.

Cell & Gene Meeting on the Mesa는 전 세계 CGT 기업과 투자자, 규제·산업 관계자들이 모이는 대표적인 글로벌 행사다. 올해도 1500명 이상의 업계 관계자와 100개 이상의 기업 발표, 5000건 이상의 일대일 파트너링 미팅이 진행됐다.

오가노이드사이언스는 행사 첫날인 5일 이경진 CTO가 ‘모델에서 치료제로: NAMs를 활용한 CGT 개발 가속, 후보물질 위험 감소 및 자원 효율성 향상’을 주제로 한 패널에 참여했다. 일라이 릴리, 후지필름, 다크호스 컨설팅 그룹 등과 함께 NA



오가노이드사이언스 이경진 CTO(오른쪽 두번째)가 지난 5일 미국 애리조나주 피닉스에서 열린 ‘Cell & Gene Meeting on the Mesa 2026’에서 ‘모델에서 치료제로: NAMs를 활용한 CGT 개발 가속, 후보물질 위험 감소 및 자원 효율성 향상’을 주제로 한 패널에 참여했다.

Ms가 CGT 개발의 성공 가능성과 효율을 어떻게 높일 수 있는지를 심도있게 논의했다.

NAMs는 오가노이드, 사람 유래 세포, 장기칩(Organ-on-a-Chip) 등 인체 생물학을 보다 직접적으로 반영하는 모델을 활용해 의약품의 효능과 안전성을 평가하는 새로운 접근법이다. 과거에는 동물실험을 줄이거나 대체하는 기술로 주목받았다면, 최근에는 인체 반응을 더 정확히 예측하고 실패 가능성이 높은 후보물

질을 개발 초기에 걸러내는 핵심 기술로 역할이 확대되고 있다.

6일에는 오가노이드사이언스의 미국 자회사인 오가노이드 바이 사우스웨스트(OXSW)가 혁신 세션(Innovation Spotlight)에서 발표에 나섰다. 이날 발표에서는 장 오가노이드 재생치료제 ‘ATORM-C’의 임상 결과와 함께, 두 번째 파이프라인인 침샘 오가노이드 재생치료제 ‘ATORM-S’의 향후 개발 방향을 소개했다.

/이세경 기자 seilee@

‘엠포즈마’, 소아 코로나 적응증 추가 승인

셀트리온, 美 FDA로부터 품목허가

셀트리온은 자기면역질환 치료제 ‘엠포라’ 바이오시밀러 ‘엠포즈마(AVTOZMA)’의 정맥주사(IV) 제형이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2세 이상 소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적응증 추가 승인을 획득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승인으로 엠포즈마의 COVID-19 치료 대상은 기존 성인 환자에서 2세 이상 소아 및 청소년 환자까지 대폭 확대됐다. 특히 성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허가된 치료 옵션이 부족했던 소아 고위험군 및 중증 입원 환자 치료에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유행성 호흡기 감염병 대응을

위한 필수 의약품으로서의 입지를 다지게 됐다.

엠포즈마는 체내 염증 유발에 관여하는 인터루킨(IL)-6의 작용을 억제해 염증 반응을 감소시키는 토실리주맙 바이오시밀러로, 미국에서 류마티스 관절염(RA), 거대세포동맥염(GCA), 다관절형 소아특발성관절염(pJIA), 전신형 소아특발성관절염(sJIA), COVID-19 등에 대한 허가를 확보하고 있다.

셀트리온은 지난해 1월 엠포즈마의 피하주사(SC) 및 정맥주사(IV) 두 가지 제형에 대해 미국 FDA로부터 품목허가를 획득했다.

/이세경 기자

롯데바이오로직스, 알보텍과 생산 계약

美 시러큐스서 바이오시밀러 제조

롯데바이오로직스는 글로벌 생명공학 기업 알보텍(Alvotech)과 생산 수주 계약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계약 체결식은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개최된 글로벌 제약·바이오 전시회 ‘CPHI Millan 2026’ 현장에서 진행됐다.

이번 계약에 따라 롯데바이오로직스는 글로벌 시장 내 공급을 목적으로 미국 뉴욕 시러큐스 생산 시설에서 알보텍의 다수 항체 바이오시밀러 원료의약품을 제조할 예정이며, 양사는 향후 협력 범위를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시러큐스 생산공장은 4만 리터(L) 규모의 바이오의약품 제조용 바이오리액터를 비롯해 자체적인 공정 개발 및 품질 관리 역량을 갖추고 있다.

특히 상업용 바이오의약품 제조 분야에서 확고한 트랙레코드를 보유하고 있으며, 최근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불시 실시를 ‘지적 사항 없음(Zero Observations)’으로 통과해 세계적 수준의 품질 및



신유열 롯데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 박제임스 롯데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 리사 그레이버 알보텍 대표이사, 로버트 웨스만 알보텍 회장(왼쪽부터)이 생산 수주 계약을 체결하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규제 준수 역량을 입증했다.

알보텍은 이번 계약을 통해 미국 내 생산 거점을 확대하는 동시에 글로벌 공급 네트워크를 한층 강화하게 됐다. 롯데바이오로직스를 통해 확보한 추가 생산 능력은 알보텍의 자체 개발 및 제조 역량과 기존 파트너십을 보완하여, 확장 중인 제품 포트폴리오를 뒷받침하고 글로벌 시장 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하는데 기여할 전망이다.

/이세경 기자

해피바스, 산양유 바디워시·로션 출시

온 가족이 함께 쓰는 고보습 제품

아모레퍼시픽이 바디케어 브랜드 해피바스 제품군을 확장하며 영유아부터 온 가족이 함께 쓰는 고보습 뷰티를 제안한다.

아모레퍼시픽은 해피바스 신제품으로 오라지널 칼라션 ‘산양유 바디워시(샤진)’와 ‘산양유 바디로션’을 출시했다고 7일 밝혔다.

‘산양유 바디워시’는 산양유 성분에 시어버터와 코코넛 오일을 결합해 샤워 후

에도 피부가 당기지 않고 촉촉함을 유지해 준다. 피부 알자 자극 테스트 및 안자극 대체 테스트를 완료하고 5가지 격정 성분을 함유하지 않는 것도 특징이다.

향은 살냄새 특유의 은은함을 살린 두 가지로 구성됐다. 깨끗하고 포근한 코트·머스크 조합의 ‘밀크 블랑쉬향’과 따뜻한 달콤한 ‘바닐라 머스크향’을 탑재했다.

함께 출시된 ‘산양유 바디로션’은 24시간 동안 지속되는 밀착 보습력을 갖췄다.



끈적임 없이 부드럽게 흡수되는 제형을 설계해 바디워시와 병행 사용 시 보습력과 향 유지력을 높인다. 아모레퍼시픽 관계자는 “금목서, 베이비 파우더, 체리블로섬, 솜 라벤더 등에 이어 산양유를 추가해 소비자 선택 폭을 넓혔다”며 “우수한 기능과 샤워 후에도 기분 좋은 잔향이 일상 속 바디케어를 다양하게 완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mlee236@